www.GongPlant.co.kr
시원하고 깨끗하게! 부드럽게! 친절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지하철 1호 시청역, 5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教新聞

대우투어 daeseungtour
신혼상품 블루투어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6년 10월 10일(2012년 / 단기 4345년 중력 8월25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54호

남북 불교교류 '상징' 문화유산 연구 '공감'

기획 신계사 복원 5주년 남북불교교류 빨가와 천만

남북 불교계가 함께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한지 5년이 흘렀다. 지난 4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효스님)와 조선불교단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가 '남북불교도공동선언'을 실천,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데 이어, 5일에는 대북 수해지원과 신계사 남북 합동법회 개최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를 가졌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을 맞아 그동안 올즈렌연 남북불교교류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신계사 복원 사례는 남북불교교류의 방향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계종과 조선불교단연맹이 협력해 사라졌던 민족문화유산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모범 사례이자 통일을 위한 큰 주춧돌을 세운 사업이었다.

신계사 복원을 위해 남북 불교계는 지난 2001년 공동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4월 착공 이후 2007년까지 북위 불사를 위한 인력, 물적 교류를 펼쳐 왔다. 이때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신뢰 구축에 기틀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혹로 폐허가 된 문화유산을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개성 영통사 복원이 물자와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신계사 복원은 이념과 한 단계 진전된 교류 협력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남북 공동복원' 첫 사례

정부 전향적 자세 필수

경색국면서도 교류한

불교가 주도적으로 다시

공동문로 찾아야

13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낙성법회 당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신계사 복원사례는 남북 불자들이 마음과 뜻이 어우러지고 남북이 힘을 모아 화해와 협력을 이뤄내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지관 남북 사이에 사회문화교류는 여전히 정치, 군사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교류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 차원에 대한 지관 원장은 "2·26조치 이후, 사실상 민간 남북교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계사 복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신계사 복원불사는 한 해 북측만세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주저앉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금강산 지역 불교문화재 공동조사나 불교건축 문화유산 공동 연구, 불교 문화재 교환 전시 등 문화재 교류를 통해 신계사 복원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금강산 신계사 도감(통합)이사인 민주성 집행위원 제주스님은 지난 9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 나린다"해제 중·고등·군장병 부문 두 개인상과 단체상, 특별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했다.

중등부문과 고등부부문은 경포여자중학교 2반년 장재연 학생(2학년)과 미타단행회)과 대구 운암고등학교 2학년 반진경 학생(운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불자도장)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 자매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체상 대상은 강원대학교 태권소년협회가 차지했으며, 현장에서 결과가 발표된 초등부와 일반부는 오남초등학교 5학년 양윤성 학생(봉선사 어린이법회)과 조계사불교대학원(이정애·전선호·전홍연)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린다축제는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한 군장병 부문이 열기가 가장 높았다. 시행초기 '군대 특성상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2009년도 대회가 시작돼 이제 초·중·고등부부문을 뛰어넘어 전년도 만큼 수상자를 배출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또한 수상 전원이 1점대 빈빈의 슈퍼를 뽐내어 처음으로 만점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나린다축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이번 대회는 '남북불교도공동선언'을 통해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화해와 협력'을 다짐한 것처럼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끽하였다고 전한다.

이어 민주성과 조계종단은 "10·4선언이 제대로이루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고 있다. 올해 10·4선언이 5주년을 맞고 있다. 올해 10·4선언의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김용 위원 발해주어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의 환희를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성과 조계종단은 "10·4선언이 제대로이루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